

녹차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변재옥 · 한재숙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부
(2004년 3월 8일 접수)

A Study on Perception and Actual Status of Utilization for Green Tea

Jae-Oke Byun and Jae-Sook Han

School of Human Ecology, Yeungnam University

(Received March 8, 2004)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using behavior for the Green Tea by a surve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nsisted of 43.1% of males and 56.9% of females in Daegu city and Gyeong-Sang Buk-Do Provinc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 About 85.9% of the participants preferred the Green Tea owing to good for health but the others didn't like owing to not delicious. 51.1% of the subjects had one cup of Green Tea per day. The responses to the 13 questions of the Green Tea were measured on 5 point Likert scale. The item 'Green Tea is natural food' received the highest point but 'Green Tea is delicious' received the lowest. About one half of total subjects knew how to make the Green Tea and 40.4% of them learned the recipes from their mother. About 63.7% replied 'Increasing' prospects for the Green Tea consumption. About 53.7% said the plan should be 'made of good quality Green Tea' for the purpose of better improvement and extention of consumption.

Key Words : perception, Actual status of Utilization, Green Tea

I. 서론

차나무 잎에서 생산되는 녹차는 세계의 음료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커피, 코코아와 함께 카페인을 함유한 비알콜성 기호음료로서 아시아를 비롯한 160여 개 나라에서 널리 음용되어 왔다.¹⁾ 그리고 차는 조제법에 따라 발효하지 않은 차인 녹차, 반발효차인 우롱차, 발효차인 홍차의 3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며 녹차의 정미성분은 떫은맛의 탄닌, 단맛의 트레오닌, 신맛의 글루타민산, 고미

의 카페인과 당, 무기질 등이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향기와 맛을 만들어낸다.²⁾

최근 들어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비만, 고혈압, 심장질환 등 성인병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차소비가 증가하게 되었다.^{3,4)}

녹차의 기능성은 카테킨 화합물에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심이지장암, 결장암, 피부암, 위암, 폐암 등 각종 암을 억제하며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녹차는 치매예방,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 및 전자파 방어효과,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

소화관에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변중의 배설량을 늘리는 등 다양한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⁵⁻⁹⁾ 그래서 녹차를 주로 음료로 이용하지만 최근에는 녹차분말을 음식에 넣어 이용하고 있는데, 녹차아이스 크림, 녹차 인절미, 녹차과자, 녹차국수, 녹차냉면, 녹차카스테라, 녹차초콜릿, 녹차껌 등이 있다.

지금까지 녹차에 대한 연구로 녹차의 일반성분에 관한 연구¹⁰⁻¹³⁾는 많이 행해져 왔으나 녹차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녹차의 인식과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녹차소비자에 대해 기호와 건강을 감안하여 녹차를 마실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조사는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10대 이상의 남·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3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다.

설문지는 1000부를 배부하여 약 900부를 회수하였으며 내용 기재가 부실한 것을 제외한 808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녹차에 대한 기호도, 녹차의 섭취형태, 녹차의 시식방법, 녹차에 대한 인식, 녹차의 소비전망과 개선점 등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방법

녹차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여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자료의 처리는 SPSSWin 10.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고, 각 변수에 따른 유의성

검증은 χ^2 -검증과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나타낸 것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Group	N(%)
Gender	Male	348(43.1)
	Female	459(56.9)
	Total	807(100.0)
Age	10~19	121(15.0)
	20~29	225(27.8)
	30~39	176(21.8)
	40~49	181(22.4)
	More than 50	105(13.0)
	Total	808(100.0)
Main region of growth	Big city	516(64.4)
	Small·medium city	223(27.8)
	Farm·sea village	51(6.4)
	Others	11(1.4)
	Total	801(100.0)
Type of family	Nuclear	682(84.8)
	Extended	89(11.1)
	Others	33(4.1)
	Total	804(100.0)
Monthly income (₩10,000)	Less than 50	212(29.2)
	50~100	69(9.5)
	100~200	157(21.6)
	200~300	113(15.5)
	More than 300	176(24.2)
	Total	727(100.0)
Religion	Buddhism	265(33.5)
	Christianity	136(17.2)
	Roman Catholicism	132(16.7)
	Others	259(32.7)
	Total	792(100.0)
Health condition	Very good	44(5.5)
	Good	361(45.1)
	Fair	315(39.3)
	Poor	78(9.7)
	Very poor	3(0.4)
	Total	801(100.0)

으로 남자는 43.1%, 여자는 56.9%였다. 연령은 20대가 27.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40대(22.4%), 30대(21.8%) 순이었으며 10대는 15.0%, 50대 이상은 13.0%로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주성장지는 대도시가 64.4%,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4.8%로서 가장 많았다. 한 달 수입은 50만원 이하가 29.2%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 이상이 24.2%, 100만원~200만원 이하가 21.6% 순이었다. 종교는 불교가 33.5%로 가장 많았으며 스스로 판단한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4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보통이다'가 39.3%, '매우 건강하다'가 5.5%로서 조사대상자들의 50.6%는 자신을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Table 2> Preference for Green Tea

N(%)

Variable	Group	Age					Total
		19≥	20~29	30~39	40~49	50≤	
Preference degree	Very good	16(13.2)	33(14.7)	10(5.7)	24(13.3)	10(9.7)	93(11.6)
	Good	30(24.8)	89(39.7)	69(39.2)	64(35.4)	29(28.2)	281(34.9)
	Fair	58(47.9)	85(37.9)	76(43.2)	80(44.2)	49(47.6)	348(43.2)
	Bad	16(13.2)	14(6.3)	21(11.9)	13(7.2)	14(13.6)	78(9.7)
	Very bad	1(0.8)	3(1.3)	0(0.0)	0(0.0)	1(1.0)	5(0.6)
	Total		121(100.0)	224(100.0)	176(100.0)	181(100.0)	103(100.0)
	χ^2 -value	df=16 30.51*					
Preference reason ¹⁾	Good for health	10(23.3)	34(28.6)	25(32.1)	31(35.6)	15(38.5)	115(31.4)
	Good smell	10(23.3)	30(25.2)	25(32.1)	16(18.4)	11(28.2)	92(25.1)
	Good mouthfeel	9(20.9)	30(25.2)	21(26.9)	13(14.9)	5(12.8)	78(21.3)
	Fresh mind	3(7.0)	8(6.7)	14(17.9)	16(18.4)	4(10.3)	45(12.3)
	Delicious	5(11.6)	14(11.8)	6(7.7)	6(6.9)	8(20.5)	39(10.7)
	To help digestion	3(7.0)	12(10.1)	6(7.7)	5(5.7)	5(12.8)	31(8.5)
	To quench thirst	0(0.0)	0(0.0)	10(12.8)	10(11.5)	1(2.6)	21(5.7)
	Others	3(7.0)	4(3.4)	1(1.3)	4(4.6)	1(2.6)	13(3.6)
	To keep awake	0(0.0)	2(1.7)	1(1.3)	3(3.4)	0(0.0)	6(1.6)
	Portable convenience	0(0.0)	2(1.7)	1(1.3)	1(1.1)	0(0.0)	4(1.1)
	To recover strength	0(0.0)	1(0.8)	2(2.6)	0(0.0)	0(0.0)	3(0.8)
	Easy to buy	0(0.0)	1(0.8)	0(0.0)	0(0.0)	1(2.6)	2(0.5)
Unpreference reason ²⁾	Not delicious	11(73.3)	6(42.9)	12(66.7)	6(54.5)	9(69.2)	44(62.0)
	Sleepless	0(0.0)	0(0.0)	0(0.0)	1(9.1)	0(0.0)	1(1.4)
	Headache	0(0.0)	1(7.1)	0(0.0)	1(9.1)	0(0.0)	2(2.8)
	Bad smell	3(20.0)	2(14.3)	2(11.1)	2(18.2)	3(23.1)	12(16.9)
	Others	1(6.7)	5(35.7)	4(22.2)	1(9.1)	1(7.7)	12(16.9)
	Total	15(100.0)	14(100.0)	18(100.0)	11(100.0)	13(100.0)	71(100.0)
	χ^2 -value	df=16 16.64					
Choice reason of having Green Tea	By oneself	44(41.5)	101(47.6)	47(29.6)	66(38.6)	26(32.1)	284(39.0)
	Good for health	21(19.8)	56(26.4)	53(33.3)	59(34.5)	31(38.3)	220(30.2)
	To enjoy with colleague	16(15.1)	26(12.3)	24(15.1)	22(12.9)	9(11.1)	97(13.3)
	To enjoy with family	12(11.3)	11(5.2)	18(11.3)	13(7.6)	7(8.6)	61(8.4)
	To enjoy with parents	13(12.3)	17(8.0)	2(1.3)	1(0.6)	1(1.2)	34(4.7)
	To enjoy with husband or wife	0(0.0)	1(0.5)	15(9.4)	10(5.8)	7(8.6)	33(4.5)
	Total	106(100.0)	212(100.0)	159(100.0)	171(100.0)	81(100.0)	729(100.0)
	χ^2 -value	df=20 78.55***					

*p<.05, ***p<.001

1),2) Subjects were free to select multiple items

있었다.

2. 녹차에 대한 기호도

녹차에 대한 기호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녹차를 좋아하는 정도가 '보통이다'가 전체응답자의 4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좋아한다'가 34.9%로서 '보통이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도 89.7%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좋아한다'에, 10대와 30대 이상은 '보통이다'에 가장 많았으며 20대와 40대는 10대, 30대 그리고 50대이상 보다 녹차를 더 좋아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좋아하는 이유는 '몸에 좋다' (31.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향이 좋다' (25.1%), '입안이 개운하다' (21.3%), '머리를 맑게 한다' (12.3%)의 순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0대와 30대는 '몸에 좋다'와 '향이 좋다'를, 20대와 40대 이상은 '몸에 좋다'를 이유로 들었다. '몸에 좋다'의 응답은 모든 연령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여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싫어하는 이유는 '맛이 없다' (62.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향이 싫다' (16.9%), '기타' (16.9%)의 순이었다. 그러므로 녹차의 소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녹차를 만들고 향을 개선시키며 가정과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도 녹차의 잎과 가루 제품 등을 음식에 첨가하여 녹차를 일상적으로 쉽게 접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녹차를 마시게 된 이유로는 '본인이 선택하여'가 3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건강에 좋아서'가 30.2%, '직장동료가 마시므로'가 13.3%, '가족이 마시므로'가 8.4% 순이었다. 녹차는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마신다가 30.9%나 되어 타인에 의해도 영향을 받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 40대는 '본인이 선택하여'가, 30대와 50대 이상은 '건강에 좋아서' 녹차를 마시고 있었다.

3. 녹차의 이용실태

〈표 3〉은 녹차에 대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하루에 녹차를 마시는 횟수는 1잔이 51.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잔으로 28.8%였으며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20.1%였다. 박 등¹⁴⁾의 연구에서 하루에 녹차를 1잔 마시는 사람은 13.6%로 본 연구에서의 51.1%보다 37.5%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잔 마시는 사람은 50대를 제외하면 연령이 낮을수록(10대 73.5%, 20대 59.8%, 30대 37.3%, 40대 39.2%) 마시는 비율이 낮았다. 반면에 5잔이상 마시는 사람은 40대가 8.9%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2%로 가장 낮았다. 박 등¹⁴⁾의 연구에서 하루에 녹차를 꾸준히 3잔이상 마시면 심장질환이 예방된다고 하는데 하루에 3잔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30·40대(27.9%, 26.0%)는 50대이상(14.0%)보다 약 1.9배 정도 더 음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차를 마실 때는 '때때로 마신다'가 53.0%, 마시는 시간대는 '시간에 상관없이 마신다'가 58.0%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마시는 계절은 '계절에 무관하게 마신다'가 68.8%로 가장 많아 녹차는 모든 연령에서 계절에 상관하지 않고 시간에 상관없이 때때로 마시고 있었다. 녹차를 마실 때의 온도는 60~70°C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는 70~80°C가 35.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80~90°C가 22.7%, 60~70°C가 20.5% 순으로 나타나 20.5%만이 녹차의 적당한 온도를 바르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선호하는 형태는 '티백으로 거른 것을 마신다'가 6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차잎을 우려 마신다'가 34.4%, '캔 종류를 마신다'가 2.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티백으로 거른 것을 마신다'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10대 79.1%, 20대 66.5%, 30대 69.5%, 40대 51.7%, 50대이상 49.0%) 젊은 세대일수록 편리성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p < .001$)

4. 다도에 대한 인식

차의 예절인 다도의 의식을 조사한 것을 〈표 4〉에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의 18.6%만이 '다도를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도의 전수자는 '학교'가 4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다원·다레원'이 19.3%, '문화센터'가 12.0% 순이었으며 '집'은 8.0%로 가정에서보다는 사설기관이나 학교에서 더 많이 배워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

<Table 3> Actual status of Utilization for Green Tea

N(%)

Variable	Group	Age					Total
		19≥	20~29	30~39	40~49	50≤	
Intake cup (per day)	1	75(73.5)	122(59.8)	60(37.3)	62(39.2)	44(51.2)	363(51.1)
	2	17(16.7)	47(23.0)	56(34.8)	55(34.8)	30(34.9)	205(28.8)
	3	5(4.9)	19(9.3)	30(18.6)	21(13.3)	9(10.5)	84(11.8)
	4	3(2.9)	8(3.9)	8(5.0)	6(3.8)	2(2.3)	27(3.8)
	5 ≤	2(2.0)	8(3.9)	7(4.3)	14(8.9)	1(1.2)	32(4.5)
	Total		102(100.0)	204(100.0)	161(100.0)	158(100.0)	86(100.0)
	χ^2 -value	df=16 59.77***					
Time of drinking	Breakfast	4(3.5)	13(6.2)	14(8.3)	12(7.1)	10(10.9)	53(7.0)
	Lunch	8(7.0)	31(14.7)	31(18.5)	24(14.1)	10(10.9)	104(13.8)
	Dinner	16(14.0)	35(16.6)	11(6.5)	18(10.6)	7(7.6)	87(11.5)
	Night	7(6.1)	15(7.1)	4(2.4)	2(1.2)	0(0.0)	28(3.7)
	Anytime	74(64.9)	107(50.7)	101(60.1)	103(60.6)	53(57.6)	438(58.0)
	Others	5(4.4)	10(4.7)	7(4.2)	11(6.5)	12(13.0)	45(6.0)
	Total		114(100.0)	211(100.0)	168(100.0)	170(100.0)	92(100.0)
	χ^2 -value	df=20 50.49***					
Season of drinking	Spring	0(0.0)	6(2.8)	2(1.2)	1(0.6)	0(0.0)	9(1.2)
	Summer	3(2.6)	11(5.2)	2(1.2)	3(1.8)	2(2.2)	21(2.8)
	Fall	5(4.4)	9(4.2)	3(1.8)	2(1.2)	3(3.3)	22(2.9)
	Winter	36(31.6)	66(31.0)	37(22.6)	29(17.2)	14(15.6)	182(24.3)
	Anytime	70(61.4)	121(56.8)	120(73.2)	134(79.3)	71(78.9)	516(68.8)
	Total		114(100.0)	213(100.0)	164(100.0)	169(100.0)	90(100.0)
	χ^2 -value	df=16 41.46***					
Proper temperature	10°C ≥	1(0.9)	9(4.2)	2(1.2)	0(0.0)	2(2.2)	14(1.8)
	40~50°C	12(10.5)	29(13.6)	7(4.0)	12(6.9)	6(6.5)	66(8.6)
	50~60°C	17(14.9)	17(8.0)	6(3.5)	10(5.8)	5(5.4)	55(7.2)
	60~70°C	18(15.8)	40(18.8)	44(25.4)	33(19.1)	22(23.7)	157(20.5)
	70~80°C	39(34.2)	77(36.2)	61(35.3)	63(36.4)	28(30.1)	268(35.0)
	80~90°C	22(19.3)	33(15.5)	47(27.2)	46(26.6)	26(28.0)	174(22.7)
	100°C ≤	5(4.4)	8(3.8)	6(3.5)	9(5.2)	4(4.3)	32(4.2)
Total		114(100.0)	213(100.0)	173(100.0)	173(100.0)	93(100.0)	766(100.0)
	χ^2 -value	df=24 51.79***					
Preference method of drinking Green Tea	To drink soaking leaves	21(18.3)	66(30.3)	52(29.9)	82(46.1)	48(50.0)	269(34.4)
	To drink straining Tea bag To drink commercial Green Tea Can	91(79.1)	145(66.5)	121(69.5)	92(51.7)	47(49.0)	496(63.5)
		3(2.6)	7(3.2)	1(0.6)	4(2.2)	1(1.0)	16(2.0)
	Total		115(100.0)	218(100.0)	174(100.0)	178(100.0)	96(100.0)
	χ^2 -value	df=8 41.43***					

***p<.001

었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는 다른 연령층보다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많았으며 '집'에서 배운 사람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다.(p<.01) 다도의 계승을 시키고 싶다는 의지는 70.1%로 높게 나타났으며 계승시키고 싶은 이유는 '차의 예절을 알고 싶어서'가 5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몸과 마음

을 다스리고 싶어서'가 37.4%, '호기심 때문에'가 4.3%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 모두가 '차의 예절을 알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으며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다.(p<.01) 다도를 계승시키고 싶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롭다'가 5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구

<Table 4> Consciousness for Tea ceremony

N(%)

Variable	Group	Age					Total
		19≥	20~29	30~39	40~49	50≤	
Have learned Tea ceremony	Yes	31(25.6)	36(16.0)	35(19.9)	29(16.0)	19(18.3)	150(18.6)
	No	90(74.4)	189(84.0)	141(80.1)	152(84.0)	85(81.7)	657(81.4)
	Total	121(100.0)	225(100.0)	176(100.0)	181(100.0)	104(100.0)	807(100.0)
	χ^2 -value	df=4 5.94					
Inheritance route	School	23(74.2)	21(58.3)	12(34.3)	6(20.7)	7(36.8)	69(46.0)
	다원·다례원	1(3.2)	6(16.7)	7(20.0)	12(41.4)	3(15.8)	29(19.3)
	Culture center	1(3.2)	4(11.1)	8(22.9)	4(13.8)	1(5.3)	18(12.0)
	Others	2(6.5)	3(8.3)	4(11.4)	3(10.3)	3(15.8)	15(10.0)
	House	3(9.7)	0(0.0)	2(5.7)	3(10.3)	4(21.1)	12(8.0)
	Welfare Hall	1(3.2)	2(5.6)	2(5.7)	1(3.4)	1(5.3)	7(4.7)
	Total	31(100.0)	36(100.0)	35(100.0)	29(100.0)	19(100.0)	150(100.0)
χ^2 -value	df=20 38.99**						
Have intended to inherit Tea ceremony	Yes	62(55.4)	137(68.8)	124(76.1)	109(71.2)	64(79.0)	496(70.1)
	No	50(44.6)	62(31.2)	39(23.9)	44(28.8)	17(21.0)	212(29.9)
	Total	112(100.0)	199(100.0)	163(100.0)	153(100.0)	81(100.0)	708(100.0)
	χ^2 -value	df=4 17.69** 0.001					
Reason of inheriting Tea ceremony	To know Tea table manner	37(59.7)	72(53.3)	55(46.2)	56(51.4)	28(45.9)	248(51.0)
	To control body & soul	11(17.7)	45(33.3)	52(43.7)	47(43.1)	27(44.3)	182(37.4)
	Just curiosity	8(12.9)	6(4.4)	6(5.0)	0(0.0)	1(1.6)	21(4.3)
	Others	3(4.8)	4(3.0)	3(2.5)	4(3.7)	4(6.6)	18(3.7)
	To feel good	3(4.8)	8(5.9)	3(2.5)	2(1.8)	1(1.6)	17(3.5)
	Total	62(100.0)	135(100.0)	119(100.0)	109(100.0)	61(100.0)	486(100.0)
χ^2 -value	df=16 34.91**						
Reason of not inheriting Tea ceremony	Complicated	22(48.9)	25(45.5)	20(54.1)	23(54.8)	9(60.0)	99(51.0)
	Many implement	10(22.2)	13(23.6)	5(13.5)	3(7.1)	5(33.3)	36(18.6)
	To be behind the times	9(20.0)	11(20.0)	5(13.5)	7(16.7)	1(6.7)	33(17.0)
	To take a long time	4(8.9)	6(10.9)	7(18.9)	9(21.4)	0(0.0)	26(13.4)
	Total	45(100.0)	55(100.0)	37(100.0)	42(100.0)	15(100.0)	194(100.0)
χ^2 -value	df=12 14.65						

**p<.01

비하여야 할 도구가 많다'가 18.6%, '시대에 맞지 않다'가 17.0%, '시간이 많이 걸린다'가 13.4%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 모두 다도는 번거롭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5. 녹차에 대한 인지도

〈표 5〉는 녹차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것으로 신뢰도 계수 $\alpha=0.90$ 으로 매우 높았고 전체적인 녹차의 인식은 3.80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 중 인식이 높은 항목은 녹차는 '자연식품이다'가 4.1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인체에 유익

하다'가 4.05점, '성인병 예방에 좋다'와 '건강식품이다'가 4.02점, '다이어트에 좋다'와 '전통식품이다'가 3.94점, '피부미용에 좋다'가 3.88점 등의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다이어트에 좋다'와 '피부미용에 좋다'의 항목에서 인식이 가장 높았고, 20대 이상은 '자연식품이다'의 항목에서 인식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가장 낮은 인식을 보인 '맛있다'는 항목에서는 평균 3.30점으로 30대(3.16점)와 50대 이상(3.18점)보다 연령이 낮은 10대(3.30점), 20대(3.47점), 40대(3.30점)가 더 나은 점수를 보였다(p<0.01). 본 논문에서는 녹차에 대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가진 것으

<Table 5> Perception for Green Tea

(Mean ± SD)

Group	Age					Total	χ ² -value
	19≥	20~29	30~39	40~49	50≤		
Natural food	4.06±0.70 ^{ab}	4.22±0.75 ^b	4.00±0.67 ^a	4.13±0.72 ^{ab}	4.05±0.91 ^{ab}	4.11±0.74	2.46*
Good for human body	4.05±0.65 ^{ab}	4.15±0.66 ^b	3.95±0.70 ^a	4.09±0.70 ^{ab}	3.95±0.77 ^a	4.05±0.69	2.72*
To prevent adult disease	3.97±0.79 ^{abc}	4.13±0.70 ^c	3.94±0.65 ^{ab}	4.09±0.72 ^{bc}	3.89±0.85 ^a	4.02±0.73	3.14*
Good for health	4.04±0.70 ^{ab}	4.14±0.72 ^b	3.90±0.63 ^a	4.05±0.61 ^{ab}	3.88±0.84 ^a	4.02±0.70	4.01**
Good for diet	4.07±0.74 ^{cd}	4.14±0.75 ^d	3.84±0.77 ^b	3.91±0.76 ^{bc}	3.57±1.04 ^a	3.94±0.82	10.30***
Traditional food	3.89±0.77 ^{ab}	4.05±0.72 ^b	3.93±0.72 ^{ab}	3.95±0.74 ^{ab}	3.79±0.86 ^a	3.94±0.75	2.31*
Good for beauty and skin	4.07±0.67 ^c	4.12±0.68 ^c	3.79±0.73 ^b	3.70±0.72 ^{ab}	3.60±0.87 ^a	3.88±0.75	14.96***
To prevent aging	3.82±0.76 ^b	3.92±0.79 ^b	3.80±0.69 ^b	3.74±0.73 ^{ab}	3.59±0.82 ^a	3.79±0.76	3.59**
To prevent constipation owing to abundant fiber	3.92±0.79 ^d	3.85±0.82 ^{cd}	3.69±0.74 ^{bc}	3.53±0.82 ^b	3.28±0.95 ^a	3.68±0.84	12.09***
Plenty of vitamin C	3.60±0.84 ^{ab}	3.69±0.87 ^{ab}	3.63±0.77 ^{ab}	3.78±0.84 ^b	3.49±0.96 ^a	3.65±0.85	2.01
Excellent nutrition	3.68±0.83 ^b	3.59±0.91 ^{ab}	3.51±0.74 ^{ab}	3.44±0.90 ^a	3.50±1.00 ^{ab}	3.54±0.87	1.65
Cheap price	3.51±0.91 ^b	3.64±0.89 ^b	3.28±0.87 ^a	3.17±0.92 ^a	3.25±0.99 ^a	3.38±0.92	8.18***
Delicious	3.30±0.97 ^{ab}	3.47±0.87 ^b	3.16±0.76 ^a	3.30±0.92 ^{ab}	3.18±0.96 ^a	3.30±0.89	3.52**
Total	3.84±0.53 ^{bc}	3.94±0.49 ^c	3.72±0.51 ^{ab}	3.75±0.48 ^b	3.62±0.68 ^a	3.80±0.53	7.93***

*p<.05, **p<.01, ***p<.001

Mean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nd a,b and c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로 나타나 앞으로 맛과 향을 좀더 개선시키고 녹차의 식품으로서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활동이 강화된다면 녹차의 소비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녹차의 소비에 대한 전망과 개선점

녹차에 대한 소비 전망과 개선점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녹차에 대한 소비전망은 '증가할 것이다'가 63.7%로 가장 많았으며, '현상대로 유지할 것이다'가 32.4%, '감소할 것이다'가 3.8%의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96.2%가 소비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녹차구입시 관심을 두는 것은 '맛'이 5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영양'이 15.9%, '가격'이 15.5%, '위생'이 7.4% 순이었다. 박 등¹⁴⁾의 연구에서는 '맛'이 40.4%, '향기'가 39.5%, '영양'이 18.4%, '빛깔'이 1.7% 순으로 나타나 본 논문과는 약간 다른 경향을 보였다.

녹차의 개선점은 '양질의 녹차를 만들었으면'이 5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제품종류가 다양했으면'이 38.6%, '가격이 다양했으면'이 14.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는 '제품종류가 다양했으면'(53.8%)이, 20대~50대 이상은 '양질의 녹차를 만

들었으면'이 가장 많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제품종류가 다양했으면'이 많았으며 '용기 및 디자인이 다양했으면'은 젊은 연령층(10대 16.2%, 20대 20.0%)은 중·장년층(30대 10.4%, 40대 11.8%, 50대 이상 9.9%) 보다 많아 젊을수록 시각적 이미지의 용기를 선호하였다.

IV. 요약 및 결론

1. 일반적 사항은 남자는 43.1%, 여자는 56.9%였으며 연령은 20대가 27.8%로 가장 많았고 주성장지는 대도시가 64.4%,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4.8%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불교가 33.5%로 가장 많았으며 스스로 판단한 건강상태는 조사대상자들의 50.6%가 자신을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녹차를 좋아하는 정도는 전체응답자의 43.2%가 '보통이다'로 가장 많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몸에 좋다'(31.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향이 좋다'(25.1%), '입안이 개운하다'(21.3%), '머리를 맑게 한다'(12.3%)의 순이었다. 싫어하는 이유는 '맛이 없다'(62.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향이 싫다'(16.9%), '기타'(16.9%)의 순이었다. 녹차

<Table 6> Prospect for consumption and improvement to extend of Green Tea

N(%)

Variable	Group	Age					Total
		19≥	20~29	30~39	40~49	50≤	
Prospect for consumption	Increasing	72(60.0)	138(62.7)	106(62.0)	123(70.7)	62(61.4)	501(63.7)
	Decreasing	6(5.0)	10(4.5)	3(1.8)	3(1.7)	8(7.9)	30(3.8)
	Maintenance	42(35.0)	72(32.7)	62(36.3)	48(27.6)	31(30.7)	255(32.4)
	Total	120(100.0)	220(100.0)	171(100.0)	174(100.0)	101(100.0)	786(100.0)
	χ^2 -value	df=8 13.27					
Method of selection	Delicious	72(62.1)	131(59.8)	95(56.2)	111(64.2)	55(56.7)	464(59.9)
	Nutrition;	21(18.1)	35(16.0)	33(19.5)	20(11.6)	14(14.4)	123(15.9)
	Price	20(17.2)	41(18.7)	33(19.5)	19(11.0)	7(7.2)	120(15.5)
	Sanitary	3(2.6)	7(3.2)	8(4.7)	20(11.6)	19(19.6)	57(7.4)
	Quantity	0(0.0)	5(2.3)	0(0.0)	3(1.7)	2(2.1)	10(1.3)
	Total	116(100.0)	219(100.0)	169(100.0)	173(100.0)	97(100.0)	774(100.0)
	χ^2 -value	df=16 55.35***					
Improvement on extention ¹⁾	Made of good quality Green Tea	56(47.9)	124(57.7)	90(55.2)	83(48.8)	53(58.2)	406(53.7)
	Diversity of Green Tea goods	63(53.8)	85(39.5)	58(35.6)	60(35.3)	26(28.6)	292(38.6)
	Diversity of prize	11(9.4)	38(17.7)	26(16.0)	26(15.3)	10(11.0)	111(14.7)
	Diversity of packing and packing design	19(16.2)	43(20.0)	17(10.4)	20(11.8)	9(9.9)	108(14.3)
	Others	17(14.5)	23(10.7)	6(3.7)	15(8.8)	11(12.1)	72(9.5)

¹⁾ Subjects were free to select multiple items

를 마시게 된 이유로는 '본인이 선택하여'가 39.0%, '건강에 좋아서'가 30.2%, '직장동료가 마시므로'가 13.3%, '가족이 마시므로'가 8.4% 순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가 하루에 녹차를 마시는 횟수는 1잔이 51.1%이었으며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30·40대(27.9%, 26.0%)가 50대이상(14.0%) 보다 약 1.9배 정도 더 음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차는 모든 연령에서 계절에 상관하지 않고 시간에 상관 없이 때때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실 때의 적당한 온도는 70~80°C가 35.0%가 가장 많았고 선호하는 형태는 '티백으로 거른 것으로 마신다'가 63.5%로 가장 많았다.

4. 조사대상자의 18.6%만이 다도를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도의 전수자는 '학교'가 46.0%로 많았고 그 다음은 '다원·다레원'이 19.3%, '문화센터'가 12.0% 순이었으며 '집'은 8.0%로 가정에서보다는 사설기관이나 학교에서 더 많이 배워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느꼈다. 다도의 계승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는 70.1%로 높게 나타났으며 계승시키고 싶은 이유는 '차의 예절을 알고 싶

어서'가 51.0%로 가장 많았다. 계승시키고 싶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롭다'가 51.0%로 가장 많아 전 연령 모두가 다도는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5. 전체적인 녹차의 인식은 3.80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각 문항 중 인식이 높은 항목은 녹차는 '자연식품이다'가 4.1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인체에 유익하다'가 4.05점, '성인병 예방에 좋다'와 '건강식품이다'가 4.02점, '다이어트에 좋다'와 '전통식품이다'가 3.94점, '피부미용에 좋다'가 3.88점 등의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6. 녹차에 대한 소비전망은 '증가할 것이다'가 63.7%로 가장 많았으며 개선점은 '양질의 녹차를 만들었으면'이 5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제품종류가 다양했으면'이 38.6%, '가격이 다양했으면'이 14.7% 순이었다.

■ 참고문헌

1) 박영현, 원은경, 손동주 : 녹차 카테킨류의 pH에 대한 안정성 연구. J. Fd Hyg. Safety, 17(3):

- 117-123, 2002.
- 2) 임동춘 : 녹차제조 중 주요 성분의 변화, 경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3) Namiki K., Yamanaka, M., Tateyama C., Igarashi M., and Namiki, M. Nippon Shokuhin Kogyo Gakkaishi, 38: 189, 1991.
 - 4) 나효환, 백순옥, 한상빈, 복진영 : 녹차의 카테킨류 분석법 개선, J. Korean Agric. Chem. Soc., 35(4): 276-280, 1992.
 - 5) Choi, S. H., S. H. Kim, and B. H. Lee, Effect of Green Tea on the Anti-Duodenal Ulcer in Cysteamine-Admin-istrated Rats, J. Korea Soc. Food Nutr., 22: 374-380, 1993.
 - 6) Yamane, T., N. Hagiwara, M. Tateichi, S. Akachi, M. Kim, J. Okuzumi, Y. Kitao, M. Inagake, K. Kuwata, and T. Takahachi, Inhibition of azoxymethane-induced colon carcinogenesis in rats by green tea polyphenol fraction, Jpn. J. Cancer Res., 82: 1336-1339, 1991.
 - 7) Santosh, K., A. Rajesh, E. Susan, S. W. Gary, and M. Hasan : Protection against 12-O-teradecanoylphorbol-13-acetate 12-O-teradeca 12 Oteradecanoylphorbol-13-acetate-caused inflammation in SENCAR mouse ear skin by polyphenolic fraction isolated from green tea, Car-cinogenesis, 14: 361, 1993.
 - 8) Oguni, I., S. J. Chen, P. Z. Lin, and Y. Hara : Prev. Med, 21: 332, 1992.
 - 9) 강지훈, 박영광, 정성택, 노경호 : 녹차로부터 EGCG(EpigallocatechinGallate)의 추출 및 정제, J. Korean Biotechnol. Bioeng, 14(5): 517-522, 1999.
 - 10) 고영수, 이인숙, HPLC에 의한 증체와 볶음 녹차 중의 유리 아미노산과 유리당의 정량, J. Korean Soc. Food Nutr., 14(3): 301-304, 1985.
 - 11) 김상현, 김봉호 : 茶藝業書, 3: 96, 1984.
 - 12) Nakagawa M. and I. Amano, Evaluation method of green tea grade by nitrogen analysis, J. Food Sci. and Tech., 21(2): 57-63, 1974.
 - 13) 오미정, 홍병희, 한국산 녹차의 채엽시기 및 재 조법에 따른 화학성분 변이, J. Korean Crop Sci., 40(4): 518-524, 1995.
 - 14) Keun-Hyung Park, Jong-Hoon Chung, Min-Chung Ki, Jong-Bang Eun : A Survey on Korean Consumer Attitude toward Green tea, J. Kor. Tea Soc., 2(1): 129-145, 1996.